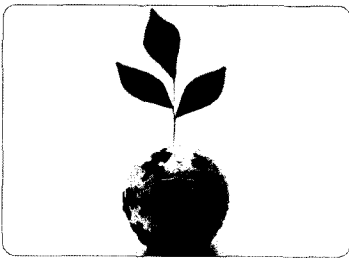


environment NEWS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마련

정부가 지난 2009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산업, 건물·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의 국가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목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09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다. 각 부문·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부터 감소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라는 꼬리표를 떨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감축목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금년 9월 추진 예정인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안에 대하여 공청회와 국민여론 접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회의와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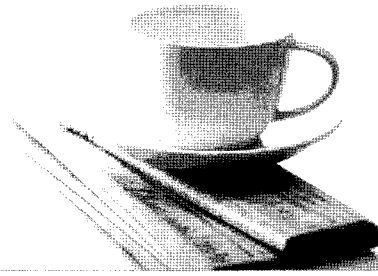
'머그컵' 쓰면 할인, 관광,
선물까지!

환경부는 17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펼친다. 최근 커피전문점 매장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패스트푸드점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 증가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결과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1회용 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스타벅스커피 등이 함께 참여해 머그컵사용의 확산에 일조하기로 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을 사용하거나 패스트푸드점으로 사용한 1회용 컵을 되가져오는 경우 2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머그컵 사용 고객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생태관광, 자전거 등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머그컵 사용 인증 사진을 행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커피를 머그컵에 마시면 좋은 이유'의 글을 게재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DSLR 등의 경품을 증정하는 '머그인 인증샷 콘테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1회용 컵 줄이기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머그컵을 사용하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올레길, 둘레길, 난 '해변길'!



올레길, 둘레길 등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해안국립공원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태안해변길'이 추가되었다. 태안해변길은 학암포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총 120km로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 바라길, 유람길, 솔로랫길, 노을길, 샛별바람길 등 5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2013년까지 전체 구간이 완성될 계획이다. 먼저 개통된 25km 구간은 몽산포에서 드르니항에 이르는 솔로랫길과 드르니항에서 안면도 꽃지까지의 노을길로, 특히 안면도 삼봉해수욕장에 위치한 노을길 1km 구간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휠체어를 이용해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몽대항 등 해변길에 위치한 항구에서 풍부한 해산물 먹거리와 함께 백합꽃축제, 별주부마을 어살문화축제 등 지역 축제도 즐길 수 있다. 환경부는 태안해변길의 개통으로 국민들이 해안생태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침체된 태안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던 국립공원 이용이 해변길을 통해 사계절 이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공원대피소, 포인트로 예약!



곧 다가올 휴가철에 '산'으로 떠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계절에 상관없이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은 등산객들의 꾸준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립공원 대피소는 이용 수요가 많아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예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이 국립공원 탐방 후에 쓰레기를 되가져 가면 적립해 주는 '그린포인트'를 이용해 대피소를 예약할 경우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8월에 도입된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는 탐방객이 자기 쓰레기뿐만 아니라 공원 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공원입구의 탐방지원센터에 가져오면 저울로 무게를 재고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대피소나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이번에 지리산, 덕유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피소 이용 정원의 10%를 그린포인트 이용자에게 배정하기로 하였다. 그린포인트로 대피소를 예약하려면 이용 예정일 20일 전에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원하는 대피소를 선택하고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멸종위기 I 급 사향노루, 민통선에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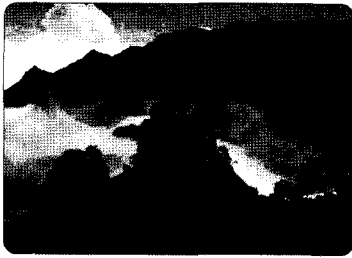
멸종위기 I 급인 사향노루가 민통선에서도 발견되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민통선 지역의 포유동물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향노루를 포함한 총 15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0년에 발표된 DMZ 조사 결과와 비교해 사향노루는 민통선지역에서 보다는 DMZ 내에서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멧돼지 등의 대형동물과 행동 반경이 넓은 담비 등은 민통선 지역에서도 달리 DMZ에서의 발견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가 실시된 북한강 서쪽의 백암산 일대는 사향노루가 서식하는 국내의 거의 유일한 지역이자, 사향노루와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I 급인 산양이 많이 촬영될 만큼 생태적인 보전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민통선지역은 DMZ와 달리 철책에 의해 고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야생동물이 서식하기 좋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DMZ, 민통선지역 등에 대해 군 작전 및 군사보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태계조사를 위한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확대 및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집 공기중에 곰팡이가 떠다니다고?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었거나 습기가 잘 차는 편이라면, 실내공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천식 유발 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 등을 조사한 결과, 공기 중의 세균과 곰팡이의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2006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보다 세균과 곰팡이의 농도가 평균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내 습도가 60% 이상인 주택에서는 그 이하인 주택보다 곰팡이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 중 곰팡이는 천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실내 습도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하세대에서 부유곰팡이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에 곰팡이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름철 장마에 실내 습기와 건물 누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가을철 부유미생물의 대량 번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주택 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려면 각 가정에서는 에어컨, 가습기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욕실 등의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 세균을 관리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 궁금하면 아래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안내 받으실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실내환경정보센터 <http://www.iaqinfo.org>

강릉에 설악산이 하나 더 생긴다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2009년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 경포지역을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최종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설악산 면적에 소나무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12만 5천톤)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 총 29개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서는 친환경 토지이용, 녹색교통, 자연생태, 에너지효율, 물·자원순환, 녹색관광 및 생활 등 녹색도시 6대 핵심요소를 채택하여 강릉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제로도시,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녹색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환경부는 본 사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관광 수익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증대, 생태녹지율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여 전국 16개 시·도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고보드 '발암물질' 조심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석고보드를 대상으로 라돈 방출량 및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방사성 물질의 함량이 높은 석고를 사용한 석고보드가 대량 유통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행되었다. 석고보드는 주택의 벽체나 학교, 사무실 등의 천장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산부산석고, 배연탈황석고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인산부산석고를 원료로 한 석고보드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은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서, 인산부산석고를 원료로 사용한 석고보드가 배연탈황석고를 사용한 석고보드보다 25배 높은 라돈 방출량을 나타냈다. 이는 라돈농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산부산석고가 배연탈황석고보다 약 16배에 많은 라돈 농도를 나타냈다. 과학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석고보드에서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의 방출량 및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석고보드 구매 시 '환경표지제품'을 선택하는 등 방사성 물질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연 '모기 주둥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기 주둥이는 단순히 뾰족한 빨대 모양일까요? 개미나 거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엉뚱하고도 재미있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전시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게 보면 다른 세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돋보기와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곤충이나 식물, 미생물 등의 신비한 세계를 크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작은 생물체의 중요성과 자원적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기획전은 크게 두 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전시 '돋보기 속 세상'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지만 너무 작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개미나 거미, 식물의 씨앗 등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와 생태를 살펴볼 수 있다. 제2부 전시 '현미경 속 세상'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생물과 세포 등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미경을 직접 조작해보는 체험코너를 마련하여 어린이들도 흥미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추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6월 2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도 감세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감세철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할 때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존중해야 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13만 회원을 대표하는 전국 7개 상의 회장단은 지속성장 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에 나섰다. 또한 회장단은 오는 11월에 최종 선정 예정인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국 상공인의 동참을 다시 한 번 독려했으며, 회의장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즉석 전자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월 정운찬 前 총리가 이끌고 있는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방안 및 성공사례 세미나



중국 가맹사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와 코트라가 지난 6월 1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방안 및 성공사례 세미나'에서 코트라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김명신 박사는 '현지 기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제품개발', '적절한 투자타이밍 선정',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인재영입', '영향력 있는 홍보모델 기용', '상표 선등록', '자체 물류·생산시스템 구축'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김 박사는 이어 "현재 중국에서는 패스트푸드와 디저트, 자동차 유지보수와 용품 판매, 주유소와 편의점 등 업종 간 제휴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국내 기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 시 다른 업종과 동반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중국 프랜차이즈 120대 기업 중 25%가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3년 내 50개사가 추가로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온라인 판매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오중등 상하이 잉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외국인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 시 식품이나 약품, 주유소 체인 설립을 위해서는 중국법인과 합작하고 자본 또한 중국 측이 더 갖도록

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이 적지 않다"면서 "투자범위에 따라 심사기관도 다르고, 취급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특수허가증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외국인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 상표 등록 및 허가방식 선택', '특허권·저작권 신청 및 허가 사용', '상호·지역명의 등록 및 상암비밀 보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법률관계' 등을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중국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인들 200여명이 참석했다.

